

'카탈렉시트' 리스크 일단 완화...갈등 여지는 남아

등록 2017.10.11 10:39:09



【바르셀로나=AP/뉴스시스】10일(현지시간) 스페인 카탈루냐 주에서 카탈루냐 분리독립 찬성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2017.10.11.

【서울=뉴스시스】안호균 기자 =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독립 선언을 유보로 '카탈렉시트(Catalexit:카탈루냐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시장 리스크가 크게 축소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자치 정부의 대화 요구에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어 양측간 갈등이 다시 커지면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남아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주 자치정부 수반은 10일(현지시간) 분리독립으로 인해 조성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공식 독립선언을 수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푸지데몬 수반은 최근 극심해진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과 관련, "스페인 중앙정부와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를 해야한다"며 독립선언의 효력을 당분간 유보하자고 제안했다.

시장은 이번 발표를 카탈루냐 독립 리스크를 크게 완화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0월 들어 1.17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던 유로-달러 환율은 이날 0.7% 가량 상승하며 1.18달러대를 회복했다.

로이터는 "푸지데몬 수반이 중앙 정부와의 갈등 심화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우려해 독립선언을 연기하고 대화를 촉구하면서 향후 카탈루냐 문제는 일단 긴장상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분리독립은 스페인과 카탈루냐 모두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줄만한 이슈다.

카탈루냐의 면적은 스페인 국토의 6% 정도 밖에 안 되지만 국내총생산(GDP)은 국가 전체의 5분의 1, 수출은 4분의 1 가량을

담당한다.

이 지역에는 폭스바겐, 닛산, 시크코 등 7100개의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있다. 카탈루냐가 분리될 경우 스페인 경제는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카탈루냐 입장에서는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유럽연합 회원국의 지위도 잃게 되는 위험이 있다.

유로존 내 관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고 시민들이 EU 회원국을 자유롭게 방문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최근 지역 1·2위 은행인 카이사방크와 방코데사바델은 물론 석유회사 가스 나투랄 SDG 등 주요 기업들은 이같은 불안에 본사를 카탈루냐 밖으로 이전했다. 독립에 반대하는 카탈루냐 주민 여론이 60%에 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카탈루냐의 독립선언 유보로 시장의 우려는 크게 완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의 독립은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만일 스페인 정부가 자치권 회수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면 대규모 집회나 폭력사태 등으로 스페인 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로존 내 4위권인 스페인 경제가 위축될 경우 유럽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돼 주변국들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날 유럽 증시는 불확실성을 완전히 털어버리지 못하고 혼조세를 보였다.

스페인 IBEX 35 지수(-0.92%), 독일 DAX 30 지수(-0.21%), 프랑스 CAC 40 지수(-0.04%), 네덜란드 AEX 지수(-0.01%) 등이 하락 마감했다. 스위스 SMI 지수(+0.08%), 러시아 RTS 지수(+0.21%), 벨기에 BEL-20 지수(+0.02%), 그리스 ASE 지수(+0.65%) 등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중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리뉴 펠릭스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는 유럽 프로젝트를 신뢰하는 유럽인으로서 이번 사태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며 "질서 있는 해결책을 논의해야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 벨기에 재무장관은 "스페인이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잘 다뤄야 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hk@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